명찰 단 교복의 전후

(행19:1~7)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명찰 단 교복의 전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명찰 단 교복의 before & after, 명찰 단 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교복의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를 함께 생각합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요즘은 아주 합리적이라서 중학교 입학할 때 바로 교복을 사서 입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사춘기가 되고,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크는 신체상의 변화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입학할 때 교복을 장만해놓으면 하복 입기 전 3, 4, 5월 입고나면 옷이 너무 작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복을 6월부터 입게 하고 그 전까지는 사복으로 입고 다니도록 허용을 하더라고요.
참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집사람이 아이 교복을 미리 사놓았습니다, 작년 재고를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걸 한 달이 넘게 전에 사두어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봤더니 그 교복에 이름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제 하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다 이름표를 만들어서 박음질을 해서 예쁘게 달아놓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안에 처음 있는 중학생 하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니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 이름표를 달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 사이즈와 비슷한 사이즈의 모든 아이가 다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름표를 딱 달아놓으니까 70억 인구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을 때, 한 30센티나 됐을까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자라는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그 인격체에요.
오직 그 인격체만이 그 옷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옷이 돼버렸습니다.
하!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름표를 달지 않으면 누나 옷을 동생이 입고, 동생 옷을 누나가 입고, 날마다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표를 떠억 달아놓으니까 아무도 못 입는 거예요, 얘는 동생도 형도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아이 말고는 이 옷을 입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일은, 이름표를 단 뒤인데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인격체가 이 옷을 입게 되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명찰이 달린 옷을 우리가 입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명찰에는 태무진이라는 이름이 박혀있는데 최일권이라는 아이가 그 옷을 입었다, 그건 불법이

에요,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명찰이 박힌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둑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달린 옷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명찰이 달린 그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해요, 안 맞아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체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맞는 옷이었거든요?
그분에게만 맞는 옷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만 예수님 이름이 달린 옷을 입어도 어색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차이들이 커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신앙인데, 이 예수님 옷 입기에 관한 문제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명찰이 달린 그 옷을 우리가 입어도 거기에 어색함이 없고, 마치 도둑질해 입은 옷 같은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대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 18장 마지막에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그가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른 채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활동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서 아볼로와 똑같이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즉,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로 떠나버리

게 되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듣기 전에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다시 가르침을 못 받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세례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 받고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언과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에베소의 성령강림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볼로에 이어서 또 세례요한의 세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초점이 맞춰질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은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중간에 아볼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세례요한의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의미가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말할 때 그 물세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예수님의 명찰이 달린 옷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고 도둑질해서 입은 것 같지 않게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갖는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적용됨을 통하여 예수라는 명찰이 달린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달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이의 이름이 명찰로 달린 그 옷은 우리 아이만 입어야 되고, 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15년까지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인격체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담겨질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달린 그 옷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인데, 그 예수라는 인격체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늘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났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에게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법한 그 소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가 갖고 계신 뜻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승진에 대한 소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찬찬히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달린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 옷을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무병하고 장수하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승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많은 소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로 도저히 예수라는 이름이 달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도둑질이 돼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늘이 샘솟듯 하는 옹달샘이었는데, 우리는 땅에 대한 소원이 샘솟는 옹달샘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옹달샘이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옷에 맞춰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는 내 몸에 옷을 맞춰서 입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될 때는 과정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 옷을 입을 수 있는 체형으로 fitting 해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말하면서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렇지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소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울 때 나타나는 일이 만족이에요, 만족,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채워짐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의 현상이 평강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얼 돌이키라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주입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돈에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채워질 때에 만족을 얻고 포만감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또, 자식을 향해서 주입구를 들이대고,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커서 내 마음이 만족하려고 합니다.
애인을 향해서 주입구를 들이대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인을 통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돌이킴이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에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이 땅을 향해서 들이대던 마음의 주입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늘로 향하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만족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입구를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이킴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주입구를 돌이킬 때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로 만족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사건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주는 그 핵심적 메시지인 돌이킴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받아들여 죄 사함 받았다고 고백해놓고, 마음의 주입구가 그대로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 무병장수 하는 것, 성공하고 승진하는 것 등, 땅을 향해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옷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옷에 맞춰진 체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의미상 재현될 때에, '내가 이제는 하늘로 만

족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주입구를 하늘로 향하게 되면, 십자가 주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인해 만족해지는 그런 일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세례가 지금 누가에 의해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fitting하라, 체형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체형을 바꿉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공생애 때 살던 주님에게서 나타난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이 나타나는 옹달샘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소원을 환전하는 겁니다.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돈을 벌어서 마음이 만족하겠다는 이 생각을 바꿔야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해야 되겠다!' 환전하는 겁니다.
멋진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그때 계속해서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따라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을 환전해버리는 겁니다, '아, 하늘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천국으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환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죽었고, 세례요한의 세례도 반복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반복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샘솟는 하늘이 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늘의 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을 향해서 빨아들이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소원 모두의 주입구를 하늘로 향해서 '이제는 하늘로 내 속을 채워야지!'라고 하는 소원의 환전이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이고, 이렇게 소원이 환전되었을 때에라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

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라는 명찰이 달린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소원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흡수돼버립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과 소원의 스펙트럼은 순교에서부터 왕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아니면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실제로 하늘을 갖고 하나님을 가져서 만족하고 기뻐지는 일들이 십자가복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주입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만족해야지, 하는 소원의 환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소원의 환전,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이고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다음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례요한의 세례가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예수라는 명찰이 달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이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